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2014, 김진운 역)

프레임 · 성경의 포괄성

존 프레임 『성경론』(김진운 역, P&R Korea/CLC 2014), 제4부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 '성경의 포괄성'(다음 장이 제32장이므로 제31장으로 보임), 339–342쪽

🧭 흐름 한눈에

프레임은 앞 장들(24–27장)의 결론에서 출발합니다. 성경의 권위는 '종교 영역'이나 '구원 문제'에 갇히지 않고 삶 전체에 미친다는 결론입니다. 이어서 구약의 문화명령과 언약의 법, 그리고 쉐마를 근거로 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삶의 모든 부분을 다스리셨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상황에서 그 사랑을 표현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구체적 법 조항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모든 권세를 받으셨고, 지상명령은 문화명령을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다스림의 범위는 오히려 더 분명해집니다. 바울의 “무엇을 하든지” 구절들까지 모은 뒤, 프레임은 이렇게 결론짓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삶 전체에 미치고 성경이 그 주권의 말씀이므로, 성경의 내용은 반드시 포괄적이라는 것입니다.

📜 절별 정리

📜 1. 출발점: 성경의 권위는 '종교 칸'에 갇히지 않는다

프레임은 앞 장들, 특히 27장에서 세운 결론을 다시 꺼냅니다. 성경의 권위 있는 내용을 '세속 문제와 구별되는 종교 문제'나 '그 밖의 문제와 구별되는 구원 문제'로 좁힐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삶의 모든 것을 다룰 권리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인간 삶의 모든 영역을 다룹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에 적용됩니다. 프레임은 이것을 자신의 관점주의에 연결합니다. 성경의 속성을 논할 때 '포괄성'은 상황적 관점, 곧 “말씀이

것입니다. 각주에서는 이 문제가 특히 네덜란드계 신학 논쟁에서 '성경의 영역(scopus)' 문제로 불린다고 밝히고, 자세한 논의는 부록 B로 넘깁니다.

1. 성경의 권위는 종교·구원 영역에 한정되지 않음
2. 모든 것을 다룰 권리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
3. 성경은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에 적용됨
4. 포괄성은 관점주의의 '상황적 관점'
5. 네덜란드 신학의 '스코푸스' 논쟁과 연결

> **(이 절에는 직접 인용한 구절 없음)**
> 앞 장(24–27장)의 논증을 전제로 출발함

“성경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상황에 적용된다.”

📜 2. 구약: 문화명령, 언약의 법, 그리고 쉐마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해 명령하시고, 약속하시고, 마음을 설득하시며 말씀하십니다. 그 시작이 창세기 1:28의 문화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담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명령에 응답해 맡은 임무의 일부였습니다.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와 제사만 다스리지 않으셨습니다. 달력과 절기, 옷, 경제, 고용 관행, 교육, 결혼과 이혼, 나라의 정치까지 다스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기본법인 쉐마(신명기 6:4-5)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프레임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삶에 들어오시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오히려 쉴 때와 일할 때, 가족과 이웃 관계, 예술·문학·과학·의학·정치에서 “여기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지?”를 계속 묻습니다. 반대 입장도 있습니다. 메리디스 클라인 등은 삶을 '거룩한 영역'(성경과 구원의 은혜가 다스림)과 '일상 영역'(자연계시와 일반은총이 다스림)으로 나눕니다. 프레임은 이것을 성과 속을 둘로 쪼개는 사고로 보고 거부합니다(각주 3).

2. 언약은 경제·교육·결혼·정치까지 다스림
3. 쉐마: 마음·뜻·힘을 다한 사랑
4. 진짜 사랑은 모든 상황에서 표현하려 함
5. 성/속 두 영역 구분은 거부함

> **창세기 1:28**
> 문화명령. 처음부터 인간의 모든 활동이 하나님의 명령 아래 있었음을 보여 줌
>
>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 **신명기 6:4-5**
> 쉐마. 온 존재를 다한 사랑은 삶의 모든 영역으로 번진다는 논증의 근거
>
> 4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5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 3. 신약: 법 조항은 줄었지만 다스림은 더 분명해졌다

신약의 신자는 구약처럼 삶을 규정하는 세세한 법 조항을 많이 받지 않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다스림이 줄어든 것으로 읽으면 안 된다고 프레임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린아이 시절을 지나 성숙한 아들이 되는 과정의 결과라는 것입니다(갈라디아서 4:1-7). 오히려 신약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모든 것에 미친다는 사실을 구약보다 더 분명히 말합니다. 구속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마태복음 28:18). 문화명령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땅을 다스리도록 보냈듯이, 그리스도도 자기 백성을 같은 방식으로 보내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8:19-20의 지상명령입니다.

1. 신약은 세부 법 조항이 적음
2. 이유: 어린아이에서 성숙한 아들로 자람

4.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모든 권세를 받으심

5. 지상명령은 문화명령과 같은 방식의 파송

> **갈라디아서 4:1-7**
> 신약에 세부 법이 적은 이유를 '성숙'으로 설명함
>
> 1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2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3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 하였더니 4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5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6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

> **마태복음 28:18**
> 그리스도의 권세가 하늘과 땅 전체에 미친다는 근거
>
>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 **마태복음 28:19-20**
> 그리스도가 백성을 온 세상으로 보내 모든 명령을 가르치게 하심. 문화명령과 이어짐
>
>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 4. 문화명령과 지상명령: 다른 점과 같은 점

프레임에 따르면 두 명령의 차이는 하나입니다. 문화명령은 타락과 그리스도의 사역 이전에 주어졌고, 지상명령은 그 이후에 주어졌습니다. 이 차이를 빼면 두 명령은 매우 비슷합니다. 다만 성령께서 마음을 바꾸시기 전에는 누구도 하나님을 위해 땅을

끝나지 않습니다. 전도는 제자를 삼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늘 함께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주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에 전면적으로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회개·믿음·예배만 다루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일, 성윤리, 결혼과 이혼, 분노, 원수 사랑, 걱정, 위선까지 다룹니다.

1. 차이는 타락·그리스도 사역의 전과 후뿐
2. 변화된 마음 없이는 하나님을 위한 다스림 불가
3. 그래서 다스림은 전도와 세례로 시작함
4. 세례와 첫 고백은 출발점이지 목표가 아님
5. 예수님의 명령은 삶의 여러 주제를 다룸

> **마태복음 28:19-20**
>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 제자 삼기가 전면적 순종을 목표로 한다는 근거
>
>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 5. 하나님 나라는 삶과 제도를 바꾼다

우리가 온 세상에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소식입니다. 프레임은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의 여러 구절로 이것을 보여 줍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서도 우리는 그 나라가 임하기를 구합니다(마태복음 6:10). 예수님이 고대하시는 나라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인간의 제도까지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바뀌는 길은 이렇습니다. 회심한 사람들이 믿음과 사랑을 자기 일터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역사가·과학자·음악가로서 하는 일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묻습니다. 새 열정이 예술, 오락, 의학, 가난한 이와 병자 돌봄, 법정의 정의, 죄수의 형벌, 국가 간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묻습니다. 프레임은 실제 역사도 근거로 듭니다.

1.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옴'
2. 주님의 기도도 그 나라가 오기를 구함
3. 그 나라는 인간 제도까지 바꿈
4. 회심자가 믿음과 사랑을 일터로 가져감
5. 역사 속 사례: 입양, 병원, 노예제 폐지

마태복음 3:2, 4:17, 4:23, 5:3

요한과 예수님이 전한 소식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임을 보여 줌

마태복음 3:2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마태복음 4:17 이 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4:23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태복음 5:3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사도행전 1:3, 8:12, 19:8, 20:25, 28:23, 28:31

사도들의 전도 내용도 하나님 나라였음을 보여 줌

사도행전 1:3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사십 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행전 8:12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사도행전 19:8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사도행전 20:25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사도행전 28:23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사도행전 28:31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마태복음 6:10

하나님 백성의 기본 기도가 그 나라의 임함을 구한다는 근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삶의 모든 영역이 은혜로 인해 바뀐다."

📜 6. "무엇을 하든지": 좋은 의미의 '전체' 주권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31). 프레임은 여기서 '무엇을'이 말 그대로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봅니다. 로마서 14:23도 같은 범위를 말합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는 구절입니다. 프레임은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신앙에서 동기를 얻지 않은 모든 행동은 죄라는 뜻으로 읽습니다. 골로새서 3:17과 3:23도 말과 행동, 모든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하듯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레임은 일부러 센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전체주의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고, 모든 생명과 가정과 나라, 인간이 애쓰는 모든 분야와 땅의 모든 곳에서 그 주권이 인정받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덧붙입니다. 이것은 '좋은 방식'의 전체주의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서 자기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만큼 자기 임재가 주는 복도 넓히시려 하기 때문입니다.

1. 성경의 '무엇을 하든지'는 모든 것을 포함함

4. 하나님의 주권은 삶 전체에 미침

5. 억압이 아니라 복을 넓히는 다스림

고린도전서 10:31

먹고 마시는 일까지 포함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한다는 근거

>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로마서 14:23

신앙에서 나오지 않은 행동은 죄라는 말씀. 삶 전체가 신앙의 다스림 아래 있다는 근거

>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골로새서 3:17

말과 일 모두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근거

>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23

어떤 일이든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하듯 하라는 근거

>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 7. 결론: 그러므로 성경의 내용은 포괄적이다

마지막 단계는 성경 자체로 돌아옵니다. 성경은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가 문화명령과 지상명령을 수행하도록 이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마태복음 4:4, 신명기 8:3)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마태복음 28:20)을 찾으려면 성경으로 가야

전체를 향합니다. 성경은 그 명령을 수행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내용은 포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1. 성경은 두 명령을 수행하게 하는 말씀
2. '모든 말씀', '모든 것'을 찾으려면 성경으로
3. 성경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세상의 관계를 보여 줌
4. 주권이 포괄적이니 말씀도 포괄적임

> **마태복음 4:4**
> 사람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말씀이 삶 전체를 먹인다는 근거
>
>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 **신명기 8:3**
> 예수님이 인용하신 원래 구절. 같은 원리가 구약에서부터 있었음을 보여 줌
>
>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 **마태복음 28:20**
> 그리스도가 분부하신 '모든 것'을 성경에서 찾아야 한다는 근거
>
>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 오해와 반론 ⌄

📖 용어 ⌃

상황적 관점
프레임의 관점주의(같은 진리를 규범·상황·실존 세 각도로 보는 방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사는 세계와 형편에 어떻게 닿는지 보는 각도.

문화명령
창세기 1:28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하신 명령. 인간의 모든 문화 활동을 하나님 앞의 임무로 봄.

지상명령
마태복음 28:19-20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세례 주고 가르치라고 하신 명령.

쉐마
'들으라'라는 뜻의 히브리어로 시작하는 신명기 6:4-5. 한 분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이스라엘 신앙의 기본 고백.

언약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맺으시는 관계의 약속. 하나님의 다스림과 백성의 순종, 복과 약속이 함께 담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통치와 그 영역.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핵심 내용.

성/속 이분법
삶을 '거룩한 일'과 '세속적인 일'로 나누고, 성경은 거룩한 쪽만 다룬다고 보는 사고.

자연계시·일반은총
자연계시는 하나님이 창조 세계와 양심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 일반은총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비, 지혜, 사회 질서 등).

스코푸스(scopus)
라틴어로 '목표, 범위'. 성경이 다루려는 주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묻는 신학 용어.

🔗 다른 책과 닿는 곳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성경의 권위는 '종교'나 '구원 문제' 칸에 갇히지 않고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친다.
- 구약의 문화명령·언약·쉐마와 신약의 그리스도의 모든 권세·지상명령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삶 전체를 향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 신약에 세부 법이 적은 것은 다스림이 줄어서가 아니라 백성이 성숙했기 때문이다.
- 하나님의 주권은 삶 전체에 미치지만, 억압이 아니라 복을 넓히는 다스림이다.
- 성경은 그 다스림의 말씀이므로 그 내용은 반드시 포괄적이다.

🎬 이 장을 쓰는 편

- 성경론 17편 · 누구나 읽고 알 수 있나 · 필요성과 명료성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B. B. 워필드 『성경의 영감과 권위』(CLC), 헤르만 바빙크 『개혁파 교의학』(새물결플러스)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와 존 오웬의 논고(1659)는 공유 저작물로 우리 번역입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youtube.com/@빛다방